

누에유전자원 보존현황과 이용

손봉희, 강필돈, 이상욱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계대보존 되어온 누에유전자원은 현재 등록된 수만도 321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계대보존과 더불어 품종 육성 등의 응용연구 외에도 기본연구의 소재로 끊임없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 이후, 국가간 보호주의에 따른 유전자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유전자원의 안전보존과 다양한 유전자원의 확보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의 활용범위도 생물공학 첨단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으며 신품종 육성 소재 외에도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기본연구소재로도 확대 이용되고 있다.

현재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에서 계대보존되고 있는 321계통에 대한 특성조사는 크게 다음의 분류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가 지역적 분류이다. 현재 보유계통은 일본종계 90종, 중국종계 95종, 유럽종계 35종, 열대종계 9종 한국종계 4종, 미분류 88종이다.

두 번째가 화성에 의한 분류이다. 1화성 39종, 2화성 185종, 다화성 9종, 미분류 8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등록종 외에도 미분류, 도입 미등록종 등 20여종도 특성조사를 병행하며 계대보존하고 있다.